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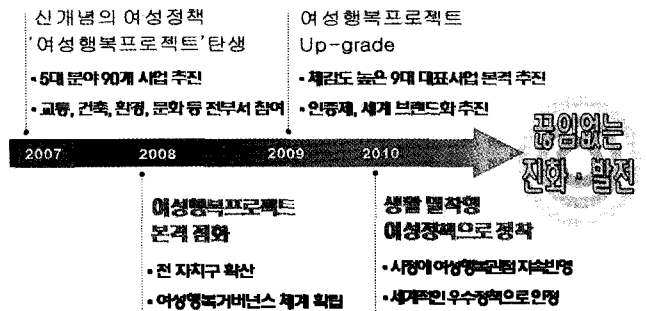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

When women are happy, the society is happy.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독신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여성의 삶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도시여성의 다양한 정책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양성평등 수준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61위/109개국('09),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104위/134개국('10)으로 경제규모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서울시에서 시민의 도시시설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인터넷 여론조사(2007년), 주차장, 화장실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2008년)를 실시한 결과, 도시시설의 불편해소와 이용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 모니터링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시설물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2007년도에 도로, 교통, 건축, 환경 등으로 여성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행정의 신개념을 도입한 여성정책인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란 도시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 불안, 불쾌한 요인을 해소하고, 여성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행복한 도시를 직접 만들어가는 여성친화적인 도시정책이다. 실생활 속에서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책의 기획, 설계단계부터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고 시민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평등을 넘어 행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추진 전략



본격적인 사업확산은 2008년도로 전 자치구를 포함하는 서울시의 종합 추진체계인 <여성행복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관을 Control tower로 각 실, 국이 신규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자치구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조사 및 정책제언시스템인 '여행 프로슈머',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인 '여행동반자', 일반 여성 정책참여 시스템인 '여행 포럼'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운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체감도 높은 9대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까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면 2011년도부터는 양성평등, 가족친화분야 시책을 강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6대분야, 46개 사업이 제시되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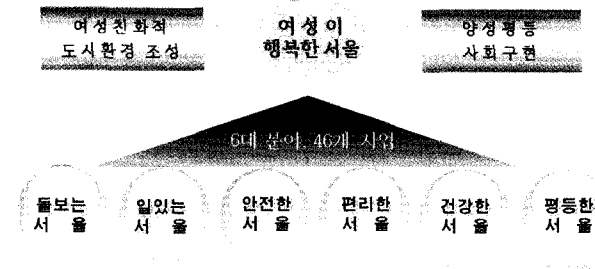
그동안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도시공간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늦은 밤 여성들을 위한 안심택시를 운영하여 '안심귀가서비스', 실시간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에서의 'Safe Zone', 지하철 보안관 운영 및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여성보호활동을 강화하였다. 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성 인지 예산제



신경선 | Shin, Kyeong-sun, KIRA
건축사사무소 에스앤디아이 대표

단국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 수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 건축개발 전문과과정(교학처)에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감정인이며, 2007년도에 에

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의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여행포럼 강사로 활동 중이다.



도 도입, 5급 이상 양성평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인력개발 기관을 확충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수혜대상을 30~40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육아걱정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를 소극장이 밀집한 대학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여성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는 도시공간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다. 기존 여성정책을 한차원 높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2010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 6월에는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프로그램'으로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 세계대도시 협의회인 메트로폴리스 총회에서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하여 세계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으로 정착하였으며 시민의견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정에 여성행복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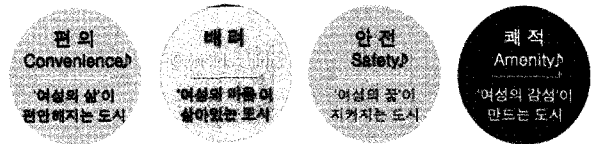
다양한 여성행복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행복 시설 인증사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도시편의 시설에 여성행복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도시조성개념을 반영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여행 인증 매뉴얼 개발, 시설물 평가, 인증심의회까지 여성건축사, 관련 전문가, 시민 프로슈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왔다.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은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실제로 도시환경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민이 체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매뉴얼 개발, 인증절차

2009년 3월 화장실, 주차장, 길에 대한 1차 인증매뉴얼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 6월에 공원, 아파트, 기업의 2차 매뉴얼이 완성됐다. 매뉴얼 개발에는 서울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개발 되었고 여성의 편의, 배려, 안전, 쾌적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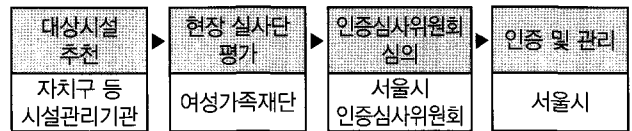
주요내용은 여성의 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여행 키워드 C.O.S.Y 女幸



필수항목과 Universal 기준(무장애 시설)에 맞는 선택/권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항목을 100%로 만족하면서 선택/권고항목에서 70점 이상이 확보되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절차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보수한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및 민간부분 우수시설을 자치구,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추천 받아서 각 시설분야별 인증매뉴얼 평가지를 기준으로 현장실사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2단계로 거치게 된다.



여행인증 평가단

2009년도에 평가단이 조직되어 여행프로슈머(여성건축사), 자치구 여행 포럼단, 시민프로슈머가 2인1조로 구성되었으며 총 134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였다. 평가단은 실사에 앞서 사전교육을 받았고 여성행복시설 인증매뉴얼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실사에 착수했다. 각 조별로 지정된 지역으로 흩어져 대상시설물들이 인증기준에 맞게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실사를 진행해왔다.

인증사업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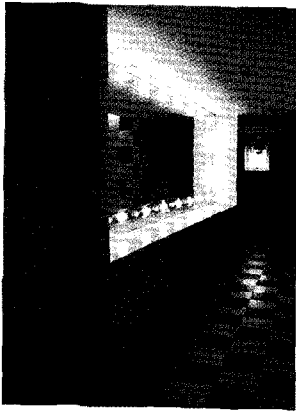
여성행복시설 인증분야는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아파트, 기업의 6개 분야로 현재까지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의 인증평가사업이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아파트, 기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행화장실

평가항목

여행화장실의 필수항목은 여성 변기 수 확보(남녀비율 1:1 이상), 유아편의시설(어린이용 대소변기, 기저귀교환대), 여성편의시설(손건조기, 세면기 주변의 걸이 등), 주야간 적정조도(150~200Lux), 단위부스 출입문 적정틈새(8~12cm)이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남녀의 출입동선 분리, 다목적 화장실 설치, 단위부스 기준, 방법 및 경보시스템(비상벨, CCTV), 안전한 바닥재,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례1 - 여행인증기준의 차별성



금천구에 위치한 마리오아울렛 화장실은 마치 미술관에 온 듯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아름답지만 인증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례로 여성과 노약자,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유아편의시설,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여행인증기준이 아름다운 화장실과는 분명히 다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2 - 청결유지와 설비관리

중구 중부시장 공용화장실은 복잡하고 정신 없는 재래시장 한가운데 위치하여 오아시스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출입구에 들어설 때까지 불편함은 화장실 내부의 빠짐없는 설비와 화사한 인테리어, 쾌적감으로 반전되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중부시장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청결유지와 설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사례3 - 친환경 관련항목

금천구 공항동 공중화장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로 들 수 있다. 동작감지센서에 의한 LED등, 자동온도조절장치, 절수변기, 천장을 이용한 자연채광을 들 수 있으며 여행 화장실의 조건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었던 사례였다. 자치구의 예산부족 때문인지 친환경 관련항목을 설치하는 예가 드물어서 2011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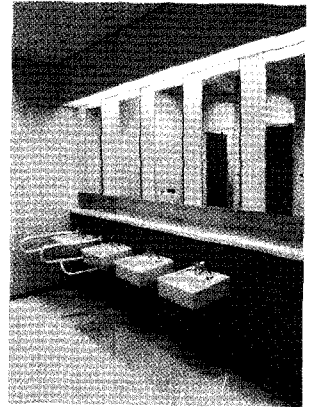
사례4- 유아편의시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유아전용 화장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설

치하여 아동이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사례가 많았는데 디자인도 유려하고 아동이 옷을 갈아입기 편한 발판 등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서초구청 내 1층 화장실은 유아편의시설과 수유실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최근에 신설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성화장실뿐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유아편의시설을 동일 규모,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육아부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반, 걸이

필수항목에 선반, 걸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반의 종류, 크기, 설치높이, 폭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설치는 되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선반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부규정을 추가하여 용도에 맞게 설치해야 실효성이 있다. 사실 여성들이 지갑만 달랑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려놓을 수 없는 선반은 장식이 불과하다. 사진은 동경 UIA대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걸이에 대한 희망이 적절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사례이다.



단위부스 틈새

단위부스 틈새기준이 6cm이던 것을 2011년부터 8~12cm로 변경하였다. 단위부스 기성품사이즈가 인증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서인데, 이로 인해 인증평가단 사이에서 부스 적정틈새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여성화장실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사사태가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에서는 “단위부스 틈새가 넓으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서 기존의 6cm기준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좀 더 개선된 환경을 위해서는 여행 매뉴얼에 맞춰 기성품 크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도구함

단위부스 내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공간에 설치해서 화장실 내에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사진과 같은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되는 데 청소 용역원을 힐책하



기보다는 설계 시에 미리 반영해서 다목적 화장실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기, 자연채광



대림도기의 CF에서는 화장실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인지시켜준다. 사람들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는 곳, 아이가 생긴 것을 처음 알게 되는

곳,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곳, 울고 싶은 때 달려가는 곳, 이런 이유들로 화장실은 가장 아름다운 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는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방법이다. 기존의 화장실들이 어둡고 사방이 막혀있었다면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여행 화장실들은 밝고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다목적화장실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사용빈도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기존 장애인 화장실에서 다목적 화장실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공화장실의 경우, 관리인이 퇴근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면적이 커지다 보니 야간이나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 대에 청소년들이 단체로 들어가 점유하고 비행을 저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행주차장

평가항목

여행주차장의 가장 중요한 필수항목은 여성우선 주차면을 20%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분홍색 주차면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한다. 필수항목은 여성 주차면과 출입구와의 거리, 주차간 적정조도(130Lux), 주차장 시야확보, 사각지대 제거 등 안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보행자통로 확보, 주차장 내 여행 화장실 설치, 출입램프의 적정성, CCTV, 비상벨, 엘리베이터 투명창 설치,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한 차량유도표지, 자연채광, 환기, 쓰레기 미적치, 경계 허물기, 그늘 식재 등이다.

사례1 - 공용주차장의 개발입지



최근 자치구에서 신설되는 주차장은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동작구 도화

공용주차장은 경사지를 이용하여 상부는 소공원으로, 하부는 공용주차장으로 개발했는데 공간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사례이다. 동작구의 갯마을 공용주차장은 차로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운전애 미숙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위치에 여성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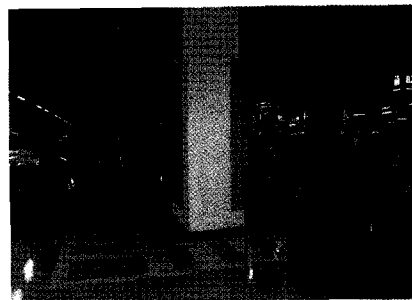
사례2- 시설물 개선 시에 사전조사 필요



중구 신당사거리 공용주차장은 주차장의 바닥마감재가 편칭메탈로 보행자통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제계단의 하부가 노출되어 하이힐을 신거나 스커트를 입은 경우에 몹시 당황스럽다.

조각조각 이어진 램프는 진입 시에 차량을 진동시키고 불안감이 느껴졌는데 이런 공용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 오래 전에 지어져 허름했고 주차장 내의 화장실 위치도 너무 무서워서 방문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 최근 자치구에서 여행시설인증을 위해 보완으로도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시설물을 개선할 때, 사전조사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시설과 보완시설을 구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례3 - 보행자통로 폭의 연속성



협소한 대지조건에서는 보행자 통로 폭(1.2m)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행을 방해하며 출입구를 당당히 막아선 주차면의 설치

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행자통로 확보는 인증기준을 앞서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이며 통로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다.

엘리베이터 투명창의 필요성

가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게 되면 미지의 층에 내리는 무서운 상상을 해보곤 한다. 낯선 장소, 늦은 시간대의 엘리베이터에서는 시나리오가 좀더 구체화된다. 요사이 늦은 시간대에 노약자, 여성, 만취한 남성들을 노리는 썩치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폐쇄적인 엘리베이터에 투명창을 설치하는 것은 내 아내, 내 아이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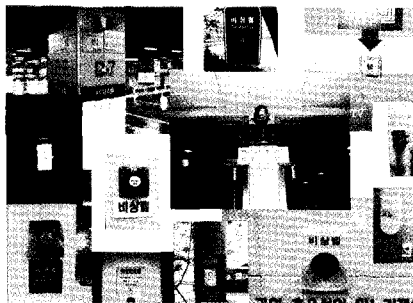
공영주차장의 아간조도



주택가에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변의 민원인으로 인해 옥상에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점등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에너지 절약,

주택가의 측면에는 필요하겠지만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빛의 방향을 하향 조종하는 조명기구, 바닥 유도등, LED를 이용해서 조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여 얼마든지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상벨의 실효성



비상벨의 형태가 참 다양해졌다. 설치 위치와 형태를 일치시키면 좀더 아름답지 않을까? 2011년에 강화된 기준 중 하나가 비상벨이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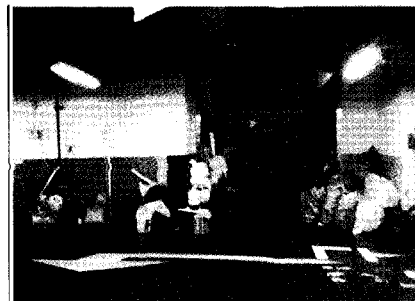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규모가 작은 공원에서는 효용성이 있었지만, 대공원(10만m²),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는 공용화장실의 경우는 그저 요식적인 부착에 불과했다. 현장관리자들은 비상벨이 시끄럽게 울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답변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움구경, 불구경엔 관심이 많아도 누군가 비상벨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관리주체가 누구이나 하는 문제도 있다. 안산 도시자연공원을 평가 중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안내 표시된 CCTV하단의 비상벨을 눌러보았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누가, 언제, 어느 구역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비상벨, CCTV의 설치는 값

비싼 장식품에 불과하다.

주차장 내 여행 화장실

여성의 경우, 아이를 동반하거나 짐을 양손에 짊어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까지 겨우 내려왔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칭얼대면 “다시 짐을 들고 올라가야 하나” 하는 난감함을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 보았을 것이다. 백화점과 같은 시설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는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사용감이 쾌적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곳을 찾기도 하늘에 별 따기이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접이식 도어, 결쇠 잠금장치로 사용이 불편하고 대부분 관리인의 편의상 잠가놓고 참고로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주체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쓰레기 배출공간



충무아트홀 지하 주차장에 쓰레기를 노골적으로 늘어놓고 부끄럼 없이 악취를 풍기는 사례이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인근 거주자들에 의

해 자연스럽게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 배출공간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길

평가항목

여행길은 과거의 통과보도에서 머물고 싶은 보도로서 그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이 매끄럽고 평탄하게 정비되었고 곳곳에 수목, 벤치 등의 쉼터가 조성되고 있다. 필수항목은 여성친화보행로 확보(유효 폭 1.5m), 보행로 주변의 쉼터, 벤치, 시각차폐가 없는 개방적인 공간감, 보행로와 교차로의 적정조도(30Lux 이상),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적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보행로와 주요시설과의 연결, 도로의 단차, 대중교통과의 연계에서 무장애 진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탄성볼라드, 점검구의 통합설치 등으로 보행안전 고려, 친환경적인 가로조성과 거리의 지역성, 문화적 정서를 보유한 보행가로특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사례1 - 보행가로특성화



한강 나들길은 조롱박터널을 테마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한강변으로 운동하러 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걷고 싶은 길을 제공했다.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는 대학가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대표적인 테마거리로 정기적인 축제, 공연 개최로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거리이다. 그러나 광장, 거리의 볼라드가 통일감이 없고 특고압 전력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쉬웠다.

사례2 - 여행친화보행로



동작구 현충로는 시끄러운 대로변에 숨어있는 샘물 같은 꽃길로 자가용을 막아주고 절로 걷고 싶어진다. 가로는 무표정한 램프를 걷어내고 있으며 볼라드는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자전거는 진입시키면서 동시에 디자인 의도를 반영했다. 볼라드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을 배려하는 것은 여성만 행복한 것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뢰처럼 볼썽 솟아오른 맨홀을 제거하여 미관, 편의를 고려했고 통합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보행로의 바닥마감재를 통일하여 땅 따먹기, 내 땅 지키기가 아닌 통합디자인으로 시야를 넓히고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깔끔한 하늘을 볼 수 있게 개선하고 있다.

조경을 이용한 배수설계

여행길 보도는 조경을 이용한 배수설계로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행길의 구배를 가로수 식재 방향으로 하여 우수가 화단으로 흐르도록 계획하고 화단턱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차도로 흐르지 않도록 계획하며 가로수의 바닥마감을 개방형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수성 바닥재는 블록 자체의 물 흡수량이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배수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화단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휴식공간으로서 벤치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행공원

평가항목



여행공원은 여성이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필수항목인 여성친화산책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불러온다. 일찍 퇴근해서 부부가 집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수항목은 꽃길, 가로등, 음악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는 여성친화거리, 간격 200m이내의 휴게의자, 안전한 시야확보(조경물, 휴게공간, 사각제대 제거), 범죄예방설계(CPTED)를 적용한 CCTV, 비상벨의 작동여부, 관리직원 상시 순찰 체계, 외부조도 유지 등으로 어린 자녀, 딸을 둔 부모들의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보행의 연속성 확보,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여성편의시설(어린이 시설 연계성, 미아보호시설, 유모차 대여, 정보이용시설), 학습장, 놀이공간, 생태 체험장, 운동시설,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주민 편의시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고방지 및 방재안전을 위한 관리시스템,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 쓰레기관리 동선, 친환경 자재도입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사례1- 고단한 도심 속의 휴식처



도화소공원은 고단한 도심 속에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했다. 전문적인 조경계획이 돋보였는데 좀 더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창전어린이 공원은 놀이시설 재료를 친환경 도로, 목재로 통일 하였고 요소요소의 디자인을 섬세하게 배려했지만 인증기준을 만족시 키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행시설 인증기준이 아름다운이 아닌 편의, 배려, 안전, 쾌 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례2-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공원



홍대 어린이공원은 조성목적에 맞 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이다. 공원에는 어린이공원, 소 공원, 근린공원, 체 육공원 등, 각각의 조성목적 을 가지고 있다.

이 공원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축제, 예술 시장, 프리마켓 개설 등 마치 대학생을 위한 테마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다. 주변 주택가에 소음을 발생시키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당연하 다는 듯이 점유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사례3- 사각지대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외주 어린이 공원은 사람의 통행 이 많지 않은 한적 한 위치에 있으며 인근 주택가의 쓰레기가 노출상태로 적치되어 있었다. 인접한 다세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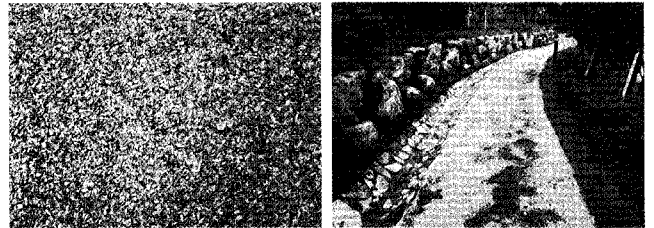
은 시야를 가리는 필로티 주차형식이었고 공원은 인접한 공사현장에 가려 어두울 뿐만 아니라 50m 인근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 우범지대로서 두루 적절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관할 자치구에 시급한 환경 개선을 건의한다.

친절하지 않은 공원 종합안내도

대부분의 공원 종합안내도가 현재위치는 표기했지만 비상벨, 인터 폰, CCTV의 위치를 표기한 안내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실제로는 친절 하지 않은 공원 종합안내도인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어 위급할 때 비상벨을 찾으려면 숨바꼭질 놀이부터 한바탕 해야 한다. 비상시에 도움을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는 위치표시용 어플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하다. 어지

러운 안내표지판도 통합해야 하고 자치구 예산 따라 제각각인 쓰레기 통의 표준 디자인도 필요하다.

페타이어 활용 바닥마감재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페타이어 재활용 바닥재는 VOC, 포름알데 히드를 배출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자치구들이 잔디블럭, 투수성 블럭 으로 공원 보행로 바닥재를 교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투수성 블럭은 시간이 흐르면 공극이 막히고 강도가 떨어진다. 단가도 아직은 비싸서 잔디블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역시 유지관리와 보행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서대문구 궁동 근린공원에서는 짚을 이용한 친환경바닥재를 사용했고 동경 오모데산도 거리는 투수성을 가진 친환경 목재를 바닥 재로 이용했으나 투수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친환경 바닥재는 실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만큼 좀더 다양한 소재가 개발 되어 설계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시설분야별 인증규모와 미인증 요인

시설분야별 인증 규모

2009년에 총 258/824개 시설이, 2010년에는 총 201/575개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여행시설로 인증 받았다. 2011년 상반기에는 총 197/388 개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여행시설로 인증 받았다. 전체 여행시설로 인증 받은 시설 수는 656개소로 전체 평가대상물의 36.7%가 인증되었 다. 시설분야별 인증률을 살펴보면 화장실 48%, 주차장 32.1%, 길 25.2%, 공원 17.7%로 화장실 분야가 가장 많다. 특히 2011년도에 높은 치수를 보이는 것은 올해 민간시설물이 상당수 인증을 신청했고 1 개 건물에 여러 층의 화장실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 평성을 위해 대상시설물의 신청기준을 다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 으나 주로 관에서 주도하던 사업이 민간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면 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표1 연도별 인증규모를 보면 여행화장실, 여 행주차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건물 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가 많고 필수항목이 소규모 보수로도 인증기준에 맞추 는 것이 가능하고 시설투자비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여행길과 여행공원은 범위 자체가 넓고 시설투자비, 공사기간이 필요한데다 신규시설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기존 시설의 경우, 이

미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인증기준에 맞춰 개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증시설의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공원의 경우, 시설마다 지역적 특성, 대지의 특성이 다르고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항목들이 다소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연도별 인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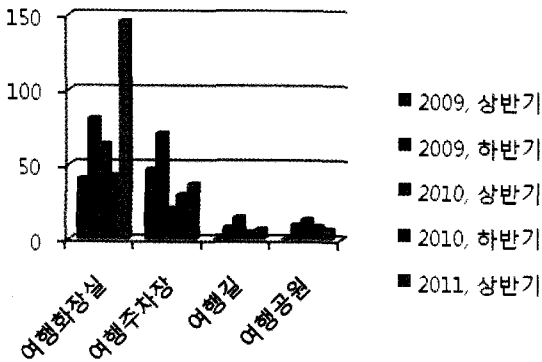


표2. 시설분야별 인증규모

시설 분야	인증 규모	인증률
여행 화장실	375 / 781	48.0%
여행 주차장	206 / 641	32.1%
여행 길	35 / 139	25.2%
여행 공원	40 / 226	17.7%

2011년 여행시설분야별 선택, 권고항목 점수분포현황

2011년도에 현장 평가한 시설분야별 점수분포도를 보면 화장실 중에서 8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곳이 136/227개소로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차장은 70점 미만이 67/109개소로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하고 65점 미만이 48개소나 되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길은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거리특성화의 과제를 안고 있고 공원 역시 안전분야에서 앞으로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표3. 시설분야별 점수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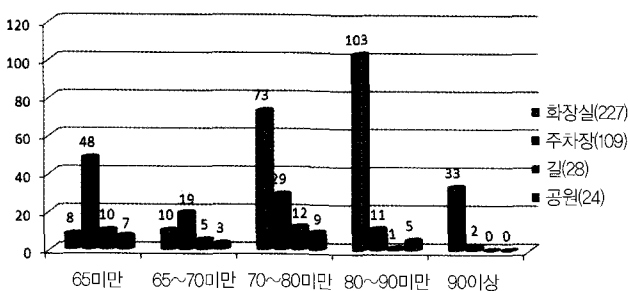


표4. 시설분야별 점수분포

	계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계	388	73	37	123	120	35
화장실	227	8	10	73	103	33
주차장	109	48	19	29	11	2
길	28	10	5	12	1	0
공원	24	7	3	9	5	0

시설분야별 미인증 요인

필수 항목

가장 많은 인증불가 요인을 시설별 필수항목으로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인증불가항목은 CCTV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시설경비에 따른 부담으로 자치구별로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위치는 주로 대중교통과 연계된 장소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표5. 시설별 필수항목 인증불가 요인

시설 분야	미인증 요인	개선 건의
여행 화장실	-여성 변기수 확보 (남녀비율 1:1이상) -부스 출입문 적정틈새 (바닥에서 8~12cm) -세면기 주변의 선반, 또는 걸이	-기존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를 맞추기 위해 남자 변기를 줄여 기준에 맞추는 폐단을 개선할 필요성 -부스의 기성품사이즈 고려 -선반의 폭, 재료 규정
여행 주차장	-여성우선 주차면 확보 (주차면 20%이상, 폭2.3m x 5.0m이상) -여성우선주차구역 적정조도 (130Lux 이상) 일반주차구역 적정조도 (100Lux 이상)	-서울시 건축 지침 반영 -에너지절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은 조도 -동작인식 센서 조명 설치 -야간의 눈부심 현상 개선
여행길	-보행로 주변 쉼터 제공 (벤치 등) -범죄예방 CCTV설치(택시 승차장, 버스정류장 연계)	-전시효과가 아닌 휴식 제공 -거리비례로 개소 기준필요 -CCTV의 관리주체의 혼선 -적정위치 기준이 애매함
여행공원	-CCTV 설치 및 작동여부 (여성친화 산책로 및 주요 시설물) -인터폰 or 비상벨 설치 및 관리인 상시 순찰제	-인터폰, 비상벨의 작동여부와 시스템의 효율성 파악 -비상벨의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움 -야간의 관리주체 부재 -적정 개소, 설치위치 등 설치와 관리시스템 연계 -심리적 범죄예방 효과 -시민의식 개선 교육

선택 권고 항목

선택권고항목은 다목적 화장실, 보행자 통로폭, 주야간 경비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횡단보도용 보행자 가로등은 2011년도부터 새로 규정되어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표6. 시설별 선택권고항목 인증불가요인

시설 분야	미인증 요인	개선 권의
여행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한 이용객) -화장실내부의 비상벨	-다목적 화장실의 규모, 위생기구의 설치규정 추가 -개소 규정 없음
여행 주차장	-보행자 통로 폭 확보 (1.2m 이상) -주차장의 야간조명 확보	-보행자 통로 폭 (1.0m) -옥상 층의 야간조명 방식개선
여행길	-횡단보도용 보행자가로등 -바다마감재 통일	-사고방지용 횡단보도 조명 설치위치, 개소 지정 (적정위치, 교차로 등) -시 보도와 건축후퇴선의 바다마감, 포장패턴 통일 -항목 추가 : 우수의 지하수 유입 -여행길 코스 안내 부재 : 코스 표식마크
여행공원	-공원의 안내표지판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친환경 자재의 사용 -주야간 경비시스템	-안내표지판의 통합필요 -쓰레기통 규격화 -구체적인 용도, 위치 지정 -관련 서류제출 필요


여행길, 여행공원의 시민 체감도가 떨어져 사업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의 취지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인 만큼 꾸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이 가지는 의미

여행 프로슈머에 의해 인증된 시설들은 여행 포럼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평가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여행 프로슈머로서 평가현장에 동참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다. 여성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시각과 인식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변화하는 것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또한 서울이 전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서 가슴이 뻐뻐했다

간혹 "왜 여자만 행복해야 하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약자, 여성,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를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시설 인증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지침화되고 관공서의 전국 주요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건축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며 여성건축사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관공서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다양한 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축사들의 시각과 경험이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되도록 해서 각 시도의 도시환경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도시도 행복해져야 하지 않을까? 

<편집자주> 이 글은 건축산업대전 전시기간인 2011. 10. 27에 서울건축사회와 서울시 여성가족 재단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만들기>에서 신경선 건축사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